

## 차례

서론 .....	5
사람들은 찾고 있다/성경은 미래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다/지금까지 만들어진 책 중에서 가장 팔목할 책/미래의 일에 대한 최고의 근거가 되는 성경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12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이다/미래로 가는 지도	
1. 휴거—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14
휴거—하나님의 계획상의 다음 사건/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2. 대환난—불신자들이여, 시간이 없다.....	17
극도에 달한 지상의 재난/아마겔돈 전쟁	
3. 주의 재림—성도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	22
만왕의 왕 만주의 주	
4. 천년왕국—지상에 도래하는 평화.....	24
평화와 번영/이상적인 사회	
5. 세상의 종말—갑자기 일어날 사건.....	29
더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6. 새 하늘과 새 땅—끝없는 사랑의 교제.....	30
교생, 슬픔, 질병과 사망이 영원히 사라진다	
7. 크고 흰 보좌의 심판—심판주와 대면한다.....	33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언제일까? 당신의 현재 상태는… 준비하라! ……………34

장차 임할 사건들의 전조/세계적인 사건들이 증동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다/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로마 제국의 부활/종교 통합 운동의 확산/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한다/거짓 메시아들의 출현/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지진/사단 승배는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반문화(反文化)의 하나다/에이즈는 말세의 초기 경고인지도 모른다

시기적절한 경고—만일 지금이 아니면 언제?……………50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죄인들에게 외치는 말/지금 현명한 행동을 취하라/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는 놀라운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한 대속제물로서 죽으셨음을 믿으라/모든 것을 얻게 된다/많은 것을 잃게 된다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을 위해 ……………55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때든 오실 수 있다/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을 늘 생각하며 살자/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남는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62

혹시 오늘!

## 서론

유명한 미래 학자인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20년 전에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이란 책으로 일순간 전 세계적으로 미래학 유행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디서든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전문적인 책을 여러 권 살 수 있으며 잡지도 최소한 한 권은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이나 잡지는 모두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그 변화는 엄청난 대격변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게 될 일들인 것입니다.

요기 베라(Yogi Berra)가 “미래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라고 선언한 말은 옳았습니다.

**사람들은 찾고 있다.**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정치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마음 속 깊이 궁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잠시 인기를 누리지만 결국에는 사장(死藏)되고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그 대단했던 공산주의의 실험이 실패한 것을 보십시오.

이제 동유럽과 기타 나라에서는 오직 민주주의만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조차도 지나치게 개방적인 나머지 수없이 많은 낙태시술이 자행되고 있고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그저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 도처에 만연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신기술이 마치 다른 구세주인양 손짓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더 많은 혼란과 상충되는 여러 가지 사실만이 우리 마음을 메우는 일이 비밀비재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TV 연속극이나 코메디, 물질 남용의 환상 세계로 도피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관한 많은 말씀을 담고 있다.**

20년 전 홀 린세이(Hal Lindsey)가 쓴 “지구 유성의 종말”(The Late Great Planet Earth)이라는 작은 책자가 보급판으로 시중에 갑작스레 나왔습니다. 이 책은 당시 월남전쟁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히피족들의 시대,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지켜온 규범들을 삼시간에 쓸어버리는 새로운 도덕관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린세이의 책은 그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심하던 많은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그 해답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거듭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원적인 해결책은 바로 최고의 정통적 권위를 지닌 책, 곧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느 미래학자들이 쓴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려는 책처럼 그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쓴 책이 결코 아니며 이 책을 쓰신 분께 일체의 인세(印稅)를 내라는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책을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들이 일체의 급료를 받은 적도 없고 유명한 서평지(書評誌)인 뉴욕커(The New Yorker)지의 호평과 찬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많은 할리우드의 고전적인 영화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

기들에 근거한 것이지만 성경은 결코 영화 제작권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온갖 첨단 기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혁명적인 사고나 창조적인 언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성경에서 우리는 휴거, 대환난, 아마겟돈, 천년왕국, 만물의 회복, 생명나무 등에 대해 읽게 됩니다. 성경은 그저 옛 세상이 고쳐지는 것에 족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길이 황금으로 덮혀 있고, 글자 그대로 중앙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 놀라운 도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미래 학자들 가운데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한,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대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덕적 문제들과 똑같은 문제들에 정면으로 직면하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도덕적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에이즈의 공포와 정부의 지원

아래 매일 4,000건씩 자행되고 있는 낙태, 50퍼센트에 이르는 가정 파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래 학자들의 말이 옳았을까요? 이들은 무어라고 기록했을까요?

### 지금까지 만들어진 책 중에서 가장 괄목할 책

성경은 기록된지 3,50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성경 예언의 기록이 정확한지 충분히 검증해 볼만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윌버 스미스(Wilbur Smith)는 성경이야말로 여태껏 만들어진 책 중에 가장 괄목할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특히 개인들, 도시들과 특별히 메시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도 성경에 나온 예언의 수와 그 성취된 예언의 수와 비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토마스 우르크하트(Thomas Urquhart)는 지적하기를 “성경의 예언은 특정한 사람들과 장소가 지닌 단 하나의 특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 특성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 주다가 종국

에는 이 특징들이 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게 됩니다. 만일 예언의 한두 가지 특징들만 성취되었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많은 묘사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이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한다면 불합리한 처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피터 스톨너(Peter Stoner)는 “과학은 말한다”(Science Speaks)라는 책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예언 48가지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이 48개의 예언 전부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157}$  중의 하나, 즉 ‘1’에다 ‘0’을 157개 붙인 후 그 수에서 단 1개가 맞을 확률인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48개의 예언 중 단 8개만 성취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라도 그 8개의 예언을 성취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스톨너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기를 우선 1달러 짜리 은화가 텍사스 주 전체의 땅 표면을 약 70cm 두께로 덮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텍사스 주는 한국의 약 7배 정도임). 그 다음에는 동전 한 개를 집어서 표시를 하고 땅에 덮인 동



전 더미 속에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가린 사람에게 텍사스 주를 정처없이 돌아다니면서 그 표시된 동전을 플라내라고 시킵니다. 이 사람이 그 동전을 찾을 가능성은 삼위의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8개의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과 같습니다.

### 미래의 일에 대한 최고의 근거가 되는 성경

이러므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근거와 표준이 되어야 하며 사실 성경은 현재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는 “미래의 충격”에 대해서 무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또 아마겟돈이 정말 임박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 콜리어(Don Coll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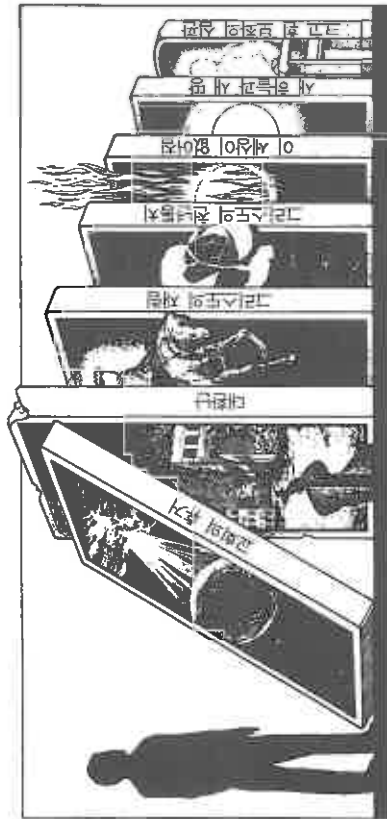
##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이다.**

아마겟돈, 현실로 다가온 계시록, 세계대전,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 끝,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대화와 글 속에서 더욱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미래의 시나리오와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것일까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심이나 혼돈, 또는 오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미래의 모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장차 일어날 일곱 가지 주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그림으로 살펴본 다음에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미래로 가는 지도



## 1. 휴거—

###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다

#### 휴거—하나님의 계획상의 다음 사건

휴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때입니다. 그분을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자들도 모두 영광의 몸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뵈고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상의 다음 사건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휴거에 대한 다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휴거는 임박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예언은 일절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심히 가까움을 나타내는 징조가 오늘날보다 더 많았던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휴거는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휴거 전에 나타나는 어떠한 징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찾지 않을 때 휴거는 일어날 것입니다.

휴거는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일이 순식간에 끝날 것이라고, 곧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을 가리켜 종종 “비밀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분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톱밥 속에 있는 금속을 낚듯이 분리하는 것처럼 그

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할 것입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더 믿고 싶어할 것입니다.

---

▶ 참고구절: 요한복음 14:1~3; 고린도전서 15:51~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 2. 대환난— 불신자들이여, 시간이 없다!

### 극도에 달한 지상의 재난

휴거 뒤에는 대환난이 이어집니다. 신자들은 모두 세상에서 사라지고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대환난은 지상에서 있게 될 7년간의 극심한 환난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언론매체의 서두에는 전쟁, 기근, 역병, 지진, 무정부 상태, 폭력에 대한 보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배척한 이 세상에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이 때에는 유래 없는 기상 이변과 무서운 재난, 끔찍한 대참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피석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바다의 삼분의 일은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의 삼분의 일이 죽을 것입니다.

144,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 일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대환난기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는 위대한 세계 지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예배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는 법을 제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몸에 짐승의 표 666을 받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물건이든 사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년 반은 대환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여태까지 없었고 후로도 다시 없을 난리와 핍박과 고통이 그 절정에 달하는 최악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 날들이 감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 아마겟돈 전쟁

바로 이 기간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 전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다른 전쟁 중 한 전쟁에서 북방에서 오는 침략군이 이스라엘의 산에서 주 예수님의 손에 참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병사들이 버린 병기들을 이스라엘의 도시에서 7년간이나 썰감으로 쓰게 됩니다. 하몬곡 골짜기에서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묻는 데에만 7개월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전쟁에서는 군사들의 피가 말 허리에까지 차게 됩니다.

사태가 이처럼 끔찍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바위와 산 더러 소리쳐서 자기들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로부터 가려 달라고 합니다.



므깃도 언덕에서 본 아마겟돈 골짜기

한 번에 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이 죽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현대가 나게 됩니다.

피가 강과 샘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 것입니다. 태양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여 무서운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무게가

200kg이 넘는 우박들이 땅에 쏟아져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 때는 고통과 두려움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쉬없이 계속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고통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환난을 피하고자 산으로 도망가지만 어디에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숨을 곳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태복음 24:44)

---

▶ 참고구절: 예레미야 30:7; 다니엘 9:27; 마태복음 24:4~28; 누가복음 21:25,26; 요한계시록 6:1~19:10

### 3. 주의 재림— 성도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기 전에 하늘에는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보이지 않게 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행성들은 원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상의 자연은 엄청난 격변을 맞게 됩니다.

####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일 후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서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발이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닿을 때 지진이 나서 그 산을 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누구든지 그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옵니다. 이들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주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일은 그분의 원수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거치는 것을 다 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자기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요한계시록 1:7).

---

▶ 참고구절: 스가랴 14:4; 말라기 4:1~3; 마태복음 24:27~31; 사도행전 1:11; 데살로니가전서 3:13; 데살로니가후서 1:7~10; 베드로전서 1:7; 4:13; 요한계시록 1:7; 19:11~16

## 4. 천년왕국— 지상에 도래하는 평화

### 평화와 번영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한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이라는 밑이 없는 구덩이 속에 가두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평화와 번영이 있는 일천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때 땅은 비옥하고 과실이 풍성히 맺히고 사막에는 즐거움이 있고 장미 꽃이 피는 곳이 됩니다. 산 꼭대기까지도 평야처럼 비옥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음식이 충분할 것입니다. 땅은 일년에 열 두 가지 과일을 낼 것입니다. 밭 가는 이가 아담해 농사지을 준비를 위해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 서둘러 밭을 갈게 될 것입니다.

야생동물을 집에서 사육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이들과 함께 늑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독사와 함

께 놀아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과 집 없는 설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들이 한 일이 미치는 유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재산,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망은 사실상 쉬게 됩니다. 신자들은 천년 내내 살게 될 것입니다. 임금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만 죽게 됩니다.

100살에 죽는 죄인은 그저 어린 아이로 여겨질 것입니다.

### **이상적인 사회**

성경을 모르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입니다. 온 땅은 주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무기

제조에 쓰이는 돈이 이 때는 전부 농업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머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오직 이스라엘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은 뒤에야 그 나람의 중요성을 띄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뭄과 질병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중에 태어난 아기들은 최악된 본성을 물려받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출생, 곧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항상 그랬듯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주를 믿게 되지는 않습니다.





올리브 산에서 본 예루살렘

사회문제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불경기나 경기침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정부의 부정부패니, 독직이니 하는 것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회정의가 유실된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거짓 종교도 사람들을 무지와 가난 속에 허

덕이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혼이니, 결혼파탄이니, 낙태, 난잡한 성관계, 아동 추행, 음란물 따위를 조금도, 아니 도무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마약과 음주도 살인만큼이나 매우 드문 일이 될 것입니다.

환경문제 걱정도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정부기관도 오염방지를 위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지구의 사방에서 군대를 모으고는 만왕의 왕을 축출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와 그 군대를 사를 것이며 결국 사단은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 5. 세상의 종말— 갑자기 일어날 사건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대기권과 천체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는 녹아서 없어지고 맙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대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태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흡사 지구 전체가 핵폭발로 없어질 것처럼 들립시다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비로소 영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 참고구절: 이사야 21~5,12; 32:1~5; 35:1~7; 54장 60장 61장 65:17~25; 66:10~24; 계시록 20:4~6; 베드로후서 3:10

## 6. 새 하늘과 새 땅— 끝없는 사랑의 교제

**고생, 슬픔, 질병과 사망이 영원히 사라진다.**

옛 하늘과 땅이 사라진 뒤에는 절대적인 공의가 그 특징을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상태이며 완전한 것입니다. 지나간 그 긴 세월동안 피조물은 이것을 기다리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형 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란히 빛나시는 가운데 이곳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받으신 그 상처를 여전히 몸에 지니신 주님께서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예와 영광과 축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부실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설 것이며, 모든 방언과 족속과 열방에서 나와서 이제는 영광의

몸을 입은 성도들로 더불어 그리할 것입니다. 천국의 문에는 자기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의 존귀함을 찬미하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때에는 고생과 슬픔과 아픈 것이나 사망이 영원히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가난,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성도들이 범죄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근심시켜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구주께서 친히 자신의 친 백성들을 한 나라로 영접하실 터인데 그곳에는 후회, 핍박, 궁핍, 오해, 시험, 인간의 약함 등이 전혀 없습니다. 구주께서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놀라운 자연의 피조물과 영적인 피조물들을 보여주시는 이때야말로 그분의 창조 역사가 얼마나 많고 끝이 없는 지를 보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따라 자기들의 기도가 어떻게 다 응답되었으며 주님께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

있을 때조차도 그분이 어떻게 가까이 계셨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영원한 세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하기에는 부족하며 인간의 마음은 그 나라의 모양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지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

▶ 참고구절: 계시록 4:8~11; 5:8~14; 21:1~27; 22:1~14

## 7.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심판주와 대면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불신자들에게 있을 심판입니다. 죽은 악인들은 무덤에서 부활하고 아직 살아있는 죄인들은 죽은 자들과 함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를 믿을 수 있었던 특권을 어떻게 멸시했느냐와 세상에서 저지른 악이 어떠한가에 근거하여 그 받을 형벌을 결정짓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급에 등급이 있듯이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에도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 언제일까? 당신의 현재 상태는… 준비하라!

### 장차 임할 사건들의 전조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접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징조가 오늘날 있는 것일까?”

성경은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휴거 날짜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를 거짓 선지자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짜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휴거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징조는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은 안전합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들은 미리 그 그림자를 드리워놓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단계의 국면이 있음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 임하셔서 자기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7년이 지난 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천년동안의 지상 통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휴거 전에는 전혀 징조가 없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시에는 그에 앞서 분명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예언된 사건들과 현재 사건들간에 일치점을 이루고 있는 점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서로 일치되고 있다면 휴거는 얼마나 더 가까워진 것이겠습니까? 이제 이런 징조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세계적인 사건들이 중동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가갈수록 세상의 사건들이 더욱 더 중동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언은 주로 이스라엘과, 또 이 나라와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혹은 이스라엘의 적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최근에 와서는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라들로는 시리아, 이란(바사),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는 구약의 앗수르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북방왕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의 남방왕은 애굽(이집트)의 통치자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예언 속에서는 그다지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대 서방국가들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쇠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힘과 지도력이 서구에서 중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

1948년의 이스라엘 국가 수립은 과거에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잎은 있지만 아직 열매는 없습니다. 몇 백년만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은 하나의 국가와 주권국으로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의 하나로 우리는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국수주의의 발흥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 나무의 싹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

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낸다면 “모든 나무”는 다른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던 정부들이 사라지고 독립국가로 탄생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2,500여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 가운데서 본토로 귀환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그림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언하기를 이들이 귀환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야 그 죄에서 정결케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 성전 산 위의 바위 돔

비록 아직까지는 만방에 공히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국제도시로 만들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대인 간에는 현재 모스크 사원이 위치한 산을 탈환해서 그 자리에 성전을 짓자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성전 산이야말로 35에어커(42,847평) 짜리 땅으로써

는 잠재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촉즉발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믿음의 근본 진리를 모두 부인하는 거짓된 이단 종파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 믿음을 흉내냄으로써 속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창궐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필연코 일어나는 일임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 로마 제국의 부활

로마 제국이 미래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예표와 상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조를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구는 로마 조약에 의거하여 창설되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세계를 지배할 권력을 가진 거대한 실체”로 묘사했습니다.

세계는 뛰어난 영도력을 지닌 슈퍼맨이 나타나서 통치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공동체를 조직

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인 헨리 스펙(Henry Speck)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가 더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뛰어난 인물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우리가 스스로 빠져든 경제난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내달라. 그가 하나 님이든 마귀든 상관없다. 그 사람을 보내달라.”

정부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테러를 진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독재자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다 한 목소리로 “신세계 질서”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 종교 통합 운동의 확산

종교 통합 운동은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보는 것과 흡사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신자,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유교 신자, 신도교 신자, 바하이교도, 조로아스터교도(拜火教)들이 서로의 견해 차를 좁히려고 회의를 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세계 주요 종교의 지도자

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하나의 거대 통합 교회로 연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의논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1986년 10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며 12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아시시(Assisi)라는 곳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이 12개 종교 중에는 아프리카의 정령숭배교도 끼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연합은 어떤 것이든간에 창기들의 어머니 큰 음녀 바벨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흉칙한 종교집단은 성경적인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어떤 종교든지 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배도가 이제 우리에게 현실로 임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국제연합(UN)은 이미 “평안과 안전”이라는 표어를 비엔나에 있는 UN본부 건물 회의장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없을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손에 못 자국난 예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홀을 잡으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결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계 정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애써 부인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강림을 언급하는 성경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비꼬는 말들을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거짓 메시아들의 출현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메시아들이 난립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문선명 목사는 최근에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동양의 정신적 지도자들 중 일부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추종케 하려고 문선

명과 유사한 주장을 요란스럽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불교도들은 메시아와 같은 세계 지도자인 마이트레야 부처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사기꾼들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지진

예수님께서서는 또 지진이 널리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인 기관의 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건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우리는 큰 강 유브라데(유프라테스 강)가 대환난기에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건너가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 갑작스럽게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만든 아타투르크 댐을 부분적으로 채우기 위해 터키 정부는 1990년 1월 몇 주 동안 유브라데 강 일부의 물길을 다른 데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들의 댐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 터키는 거의 2년 동안 유브라데 강의 흐름을 정지시켜야 할지

도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 도덕적 기준의 몰락

마지막 때에는 세계적으로 도덕적 기준이 급격하게 몰락할 것입니다.

뉴스는 이러한 말세의 도덕성 타락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날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중은 동성연애, 낙태, 음란물, 엄청난 부도덕 등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폭력과 시민 불복종이 난무할 것입니다. 무법주의가 가정과 국민생활, 학교, 교회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사단 승배는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반문화(反文化)의 하나다.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정령승배는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시에는 지구상에 귀신들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도 이것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미국에는 사단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담하게도 자기의 정체가 백마녀, 또는 흑마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을 개조하는 약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은 귀신들이 자기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TV나 신문 기사로 접하는 분별없는 살인행위나 자살 등은 곧 귀신들린 사람이 저지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귀신의 의도는 언제나 파괴인 것입니다). 사단숭배는 미국의 10대들 사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나고 있는 반문화의 하나입니다.

바벨론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 백년 동안 사막의 작은 언덕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별안간 주목받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반드시 재건될 것이며 그런 다음에는 철저히 파괴되고 영원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핵무기 제조는 “누가 그(곧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미를 더해줍니다.



재건된 고대 바벨론의 이쉬타르 문(베를린 버가모 박물관)

세계적인 텔레비전 시설들은 지구 전역에서 동시에 보게 될 사건들을 묘사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만이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쉬운 방법은 그들의 이마나 손의 피부에 수술로 이식한 자그마

한 표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전자 판독기가 666이라는 숫자가 쓰인 표를 읽게 될 것입니다.

### **에이즈는 말세의 초기 경고인지도 모른다.**

현대의 우수한 여러 항생제를 볼 때에 전세계적으로 만연할 역병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가 제트 비행기로 여행하는 시대임을 감안하면 역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이즈는 장차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될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초기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를 아프리카 인구의 25퍼센트가 10년 내에 에이즈로 사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종말의 징조 대부분은 대환난기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휴거 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일어날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런 추세가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면 명

백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곧 휴거가 너무나도 가까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면 휴거는 최소한 7년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태복음 24:33).

- 
- ▶ 참고구절: 이사야 19:23, 60:13, 에스겔 38:5, 다니엘 11:40~45, 누가복음 21:29, 에스겔 36:24,25, 스가랴 12:2,3, 디모데후서 3:8, 다니엘 2:41,42, 7:7,24, 계시록 13:1~10, 에스겔 28:1~10, 다니엘 7:7,8, 20~26, 8:23~25, 9:26,27, 11:36~45, 데살로니가후서 2:3~12, 계시록 13:1~10, 17:8~14, 데살로니가전서 5:3, 예레미야 6:14, 베드로후서 3:3,4, 마태복음 24:5,7, 누가복음 21:11, 디모데후서 3:1~5, 데살로니가후서 2:7,8, 디모데전서 4:1~3, 계시록 13:4, 계시록 1:7, 마태복음 24:7, 계시록 11:6

## 시기적절한 경고— 만일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죄인들에게 외치는 말

예언의 목적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금 현명한 행동을 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지금 현명한 행동을 취하라.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당신을 위한 메세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즉시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는 너무 늦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의



믿는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은 들림 받아 가게 되고 당신만 홀로 남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천국에 들어갈 당신의 유일한 소망으로써 영접하게 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는 놀라운 축복이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지 잘 모른다면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죄인인 것과,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과, 만일 지금 당장 죽는다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당신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격이나 선행, 세례, 교회 등록 여부, 모태교인, 부모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또는 어떠한 인간적인 재능과 학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한 대속제물로서 죽으셨음을 믿으라.**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한 대속제물로서 죽으셨고, 당신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 마땅한 댓가를 그분이 치르시고, 당신이 견뎌내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친히 받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단호한 믿음의 행동으로써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의 주요,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며,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 그분을 믿는 것은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 이것은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 당신은 모든 것을 얻으며 오직 잃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 구원받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당신은 정말로 지금 당장 주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 결신을 미루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54. 임박한 아다겟돈

- 목숨은 불확실합니다.
-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 시간은 짧습니다.
-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

▶ 참고구절: 로마서 3:23; 누가복음 13:3,5; 에베소서 2:9; 디도서 3:5; 고린도 전서 15:3,4; 요한복음 3:16; 사도행전 16:31; 로마서 10:9; 요한일서 5:13.

##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때든 오실 수 있다.

예언을 공부하게 되면 예배가 신령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창조와 구속과 섭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죄와 사단과 사망에 대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봅니다. 예언은 구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계시록 19:10). 이 말씀의 뜻은 예언의 목적이 예수님의 인격과 그 이루신 사역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서 그 일의 되어질 계획에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못 보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혜로운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께 사로잡

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언제나 사로잡혀 있도록 돕고자 계시록 전체에는 위대한 경배의 노래가 나옵니다.

###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을 늘 생각하며 살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그분을 따르는 신자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그대로 품고 지내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는 지에 대해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잃어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는 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

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담대히 고백해야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우리의 친척, 친구, 이웃들 모두가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저하는 마음에 굴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인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받는 환난과 고생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때 깃털만큼이나 가벼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늘 마음에 두고 살면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훗날 천국에 가면 다시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써 침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믿는 자가 그때까지도 침례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는 영원토록 침례를 받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여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오실 때 다시는 이것을 행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우리의 물질적인 재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만일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검소하게 살 것과, 또 현재 우리의 필요한 것 외에는 모두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짐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던 분들과 교사들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언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했을 때 사도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면 우리는 자신이 잘못을 범한 누구에게든지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배상하라는 강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범과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조리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다시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들의 집은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주의하게 되면 우리는 열심으로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섬길 의향이 있는 사람은 더 늦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우리를 위로하는 소망인 동시에 절제하며 온

유하며 지혜롭게 잘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자국 제이기도 합니다. 휴거가 사랑과 연합의 동기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남는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날에는 우리의 모든 봉사가 다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상을 받든지 아니면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받은 구원은 문제가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계속 마음에 두고 산다면 다음 시귀에 담긴 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번뿐인 삶,

그 삶은 곧 지나가 버리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남으리라.”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복된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결정과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혹시 오늘”이라는 이 말이 그저 벽에 걸어놓은 표어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 
- ▶ 참고구절: 계시록 1:5,6하; 5:9,10; 데살로니가전서 5:23; 요한일서 3:3; 창세기 19:14; 에스겔 33:6; 로마서 8:18; 고린도후서 4:17; 요한복음 14:15; 사도행전 10:48하; 누가복음 22:19,20; 마태복음 6:19; 요한일서 2:28; 마태복음 5:24; 요한복음 9:4; 데살로니가전서 1:9,10; 빌립보서 4:5; 고린도전서 3:11~15; 고린도후서 5:10

##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 혹시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매우 가까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징조들이 역사상 오늘날보다 더 많은 적은 없습니다.

데이브 헌트(Dave Hun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태껏 다른 어느 세대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기 바로 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을만한 확고한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지 못했으나 바로 우리 세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

면 참으로 가슴이 벅차 오른다.”<sup>1)</sup>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아직도 믿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삶을 당신의 주와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당신이 만일 신자라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느 때에라도 나타나실 수 있음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 일 밖에 없습니다. 혹 오늘일 수도 있기에 말입니다!

---

1) 데이브 헌트, "세계 평화와 적그리스도의 출현" 42면에서 인용

### 입박한 아마겟돈

- 발행일: 1995년 9월 15일 1판1쇄 발행  
1998년 9월 15일 1판4쇄 발행
- 지은이: 윌리엄 맥도날드
- 옮긴이: 김 대 영
- 발행인: 이 치 일(E. Ritchie)
- 발행소: 전도출판사(등록No.4-41)
- 연락처: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 전 화: (0344) 914-2732
- 팩 스: (0344) 917-4520

---

• 정 가: 1,200원

---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ISBN : 89-7531-019-1 03230